

# 농약안전사용 전문교육 강화와 올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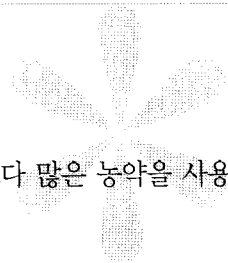
문 광 윤 \_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농약(작물보호제)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국민들이 '농약은 농작물의 약'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농약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들어내 놓고 말하지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을 앓는다고 한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듯 작물이 아프면 적합한 농약을 살포해 병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작 중요한 것은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살포하는 것이다. 해당 작물에 등록안된 농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할 경

우 작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에게 농약은 낯설지 않은 농자재중의 하나이다.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농약을 접하게 되었으므로 요즘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혐오스럽거나 기피해야 할 제품은 더더욱 아니었다. 농사철이 되면 부모님을 따라 농약을 살포하게 되는데 논이나 고추밭에서 앞뒤로 레



버를 움직이는 수동식 농약분무기의 작동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힘에 부쳐 조금이라도 작동을 늦추면 분무기의 공기압이 줄어 농약도 찢끔찢끔 배출된다. 그러면 레버를 힘껏 당기라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뒤통수를 때리곤 했다. 나중에야 경운기 등에 설치하는 동력분무기가 나와 힘들게 수동분무기 레버를 당기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어린 시절 농약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내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과목별 참고서도 구입하고 용돈도 탈 겸 농약을 구실로 삼았던 기억이 난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농사짓는데 농약이 필요하시듯 나도 공부하는데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못이기는 척 내 뜻을 받아주셨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당시 농약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생각해 보면 뚜렷한 기준이 없지 않았나 싶다. 농약 판매상의 설명을 따르거나 제품에 표시사항 대로 하셨지만 정확하지는 않았다. 물통에 물을 받아 놓고 농약을 뚜껑에 따라 '물 몇 말에 농약 몇 뚜껑' 이런 식으로 혼합하거나 아예 병 중간에 표시된 일정 눈금까지 들어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뚜껑에 일정하게 따르고 눈금에 정확하게 맞췄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더욱이 기온이 높은 한 낮에 방제복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다반사였고, 어떨 때는 바람에 맞서 농약을 살포하기도 했다. 또한 농약을 많이 살포하면 병해충도 잘 잡히는

것으로 생각해 기준량보다 많은 농약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취재차 다녀온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업인 교육은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정부나 농약업계는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해소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은 방치하거나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 관행적 방제방법 벗어나지 못해

교육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농약 안전사용 방법은 물론 동력분무기를 다루고 보관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관심을 보이고 궁금한 것을 질문했다. 지금까지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전문교육이 없어서였고,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요즘 농업인들도 농약 판매상의 설명이나 제품포장지의 표시사항대로 하는 관행적 살포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농업인들은 농약사용 방법에 대한 전문교육이 없어도 당연히 알 것이란 선입견과 농업인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관행의 굴레에 묶어 두었다고 하겠다.

정확한 농약사용 방법에 대해 이웃에게 묻는 것도 계면적이고 해서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가끔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이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부정적 인식만 키우는 것

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 소비자 건강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속적인 전문교육 강화 당위성 입증

농업인 교육은 참석한 작목반원들이 재배하는 작물의 선진 재배기술과 해당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진단 및 방제, 방제기구의 올바른 살포요령 등까지 자세하게 짜여졌다. 교육 참여율과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약잔류 경감이 가능한 점도 강조됐다.

분무기의 경우 노즐과 패키징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노즐이 좋아야 농약이 골고루 살포돼 효과가 높고, 패키징은 마모되면 농약 누수를 유발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겨울철에 분무기 공기통의 물을 제거해 얼지 않도록 하고, 벨트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손으로 작동시키면 절단사고로 이어진다는 점도 농업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농약을 살포할 때의 주의사항에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농약에 노출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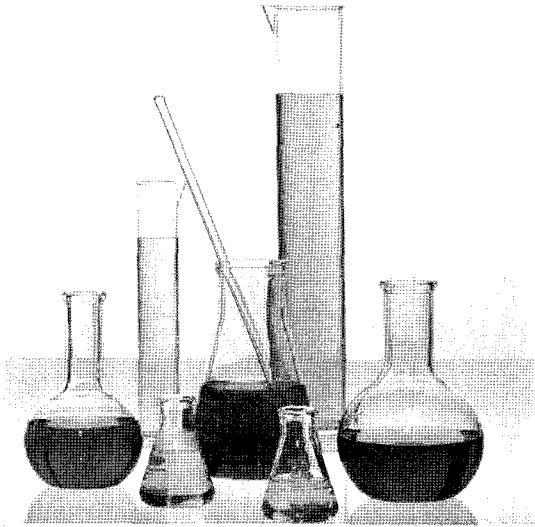
**농업인 전문교육에서는 농약의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사용방법이 강조되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은 물론 소비자 건강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들의 경우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진단하고 어떻게 방제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농약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각자의 의견이 달라진다.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대처방법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고 지속적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농약 살포기구인 동력분무기의 사용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균일한 처리를 통해 최적의 방제효과를 올리고 약제 절약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정농약 살포로

반드시 방제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해야 했던 것이다. 또한 한 낮의 뜨거운 시간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작업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병해충 퇴치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과 함께 농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가 시행되면서 농약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작물재배지의 토양·수질관리는 물론 농약살포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인



증하는 시스템이다. 유럽(EU) 등의 선진국에서는 GAP가 보편화된 만큼 농약의 수요는 지속된다고 하겠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농약은 무조건 나쁘다고 여긴다. 하지만 농약이 어떻게 개발, 등록되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품질향상, 노동력절감, 소득증대 기여

농업인 전문교육에서도 농약의 올바른 인식과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이 강조되었다. 우선 농약은 농작물을 병이나 해충, 잡초로부터 보호하고 생장조정 등을 위한 것이 기본 기능이다. 이를 통해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먹거리 확보와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농약개발과 등록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다. 개발초기부터 생산·사용자의 안전은 물론 잔류농약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미

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등록 과정에서는 약효·약해시험과 독성시험, 잔류성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생화학농약과 미생물농약 모두 비슷한데 신규품목의 경우 2~3년 동안 3개 시험성적 가운데 최종시험 1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초제는 6개 시험성적 가운데 2개를 외부기관 의뢰를 의무화할 만큼 까다롭다.

또한 독성시험에서는 사람과 포유동물은 물론 잉어, 미꾸리, 물벼룩, 꿀벌 등 환경생물독성을 거쳐야 한다. 잔류시험도 특용·사료작물 등의 식용작물과 토양·수중 잔류성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농약이 토양과 식물, 어류 등 다양한 시험을 통해 사람과 일반 생태계에 극단적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범위에서 개발되고 등록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물의 발생 병해충에 맞춰 적합한 농약을 선택한 다음 당위성 입증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농약잔류나 인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향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농약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㉞